

해외여행 증가... 소비자 피해도 늘어

소비자 4명 중 3명

‘미세먼지’에 지갑 열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1만8457건으로 전년보다 153% ↑

유형별로 계약해제 거부가 57.5%로 가장 많아

소비자원, 피해 예방가이드 마련 “특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여행사와 같은해 11월1일 출발하는 푸켓 신혼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월17일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로부터 해당기간 중 여행이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아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출발일 4개월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B여행사는 숙박 예약비용 60만원과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의 취소수수료 등 총 90만원 공제 후 잔액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

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거부,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8457건으로 지난 2010년 7295건 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 79.2%의 2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 중 피해유형 확인 가능한 1만82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내용 임의 변경’(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

(6.0%), ‘정보제공 미흡’(5.5%), ‘옵션 강요 등 가이드 불만’(4.6%), ‘사고보상 미흡’(2.6%), ‘서비스불만족’(2.4%), ‘수하물 관련’(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

우선 여행하려는 국가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한 곳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국가별 사건, 사고, 테러, 자연재해 등 안전정보와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에서 해외감염병 발생 소식을 확인하여 여행지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해당 여

행사 관할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시점에 따라 50%~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 시 여행사는 출발 7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여행요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해두기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 ▲중요한 수하물은 직접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 ▲피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로 분쟁에 대비 ▲여행지 쇼핑센터에서 충동구매 자제 ▲소비자정보종합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 구매를 위해 4명 중 3명이 지갑을 열었고, 이중 절반이 최대 20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최근 일주일간(4월14~20일) 총 846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들어 미세먼지 관련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의 심각도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89%)이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체감도가 관련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련 제품으로 어떤 품목을 구매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황사마스크 및 노스크’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가격 부담 없이 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위생용품

황사마스크·노스크 등 개인용 위생용품 가장 많이 구입해

을 많은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손소독제(12%) ▲미나리 등 관련 식품(10%) ▲공기청정기(10%) ▲공기정화식물(8%) ▲눈코세척제(6%) 등이었다.

미세먼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1%가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라고 답했고, 그 뒤로 ‘1만원 이내’(15%)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미세먼지를 위해 ‘20만원 이상 40만원 이내’ 지출했다는 응답률이 10%, ‘40만원 이상 60만원 이내’ 지출한 응답이 3%, ‘60만원 이상 80만원 이내’(1%), ‘80만원 이상’은 4%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방어를 적극적으로 나선 소비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날 장난감 시장 여아용 완구 ‘활짝 웃었다’

인형 전체 품목 전년보다 2배 올라 ‘관절인형’은 1388% 이상 치솟아

함께 즐기는 역할놀이도 인기 쇼핑카드·계산놀이 79% ↑ 소꿉·셀기놀이도 40% ↑

로봇 등 남아용 완구는 ‘주춤’ 레고 등 블록완구 강세 ‘여진’

어린이날을 앞두고 장난감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장난감 시장을 주름잡던 남아완구가 주춤한 틈을 타 여아완구가 상승장구 하고 있다.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옥션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최근 일주일(12~18일) 동안 관련 제품들을 살펴본 결과, 전체 완구 품목에서 인형, 역할놀이 등 여아완구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관절인형, 아기인형, 캐릭터인형 등 인형 전체 품목이 전년 대비 2배 올랐다. 특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인형이 14배(1388%) 이상 치솟았다.

울거나 웃고, 응알아도 해 가지처럼



〈사진=뉴스시스 제공〉

보살과 주는 아기인형도 5배(465%) 급증했다. 정원, 팬시슈, 펫슈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인형의 집(118%)과 봉제인형(112%)도 모두 2배씩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병원, 쇼핑, 미용실 등 아기자기한 상황 설정을 해 함께 즐기는 역할놀이도 인기다. 쇼핑카드·계산놀이 79% 늘었고, 소꿉·셀기놀이도 40% 증가했다.

반면 지난 몇 년간 어린이날 대표선물물 주목 받았던 로봇, 승용완구, 자동차 등 남아용 장난감의 판매량은 오히려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까지 어린이날 장난감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완구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했다. 전동차나 자전거 같은 승용완구도 2% 줄었다. 미니자동차, 기차 등 작동완구는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레고'로 대표되는 블록완구의 경우 남아와 여아를 불문하고 여전히 강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레고·블록의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배(95%) 가까이 늘었다.

실제 옥션이 어린이날 프로모션을 통해 데일리 특가로 소개했던 '레고 시티즈'는 하루 만에 500개 이상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옥션은 어린이날 수요를 겨냥한 '도이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인기 장난감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대표상품으로는 '레고 시티고속열차'가 35% 할인된 가격인 10만9000원이며, '바른생활 공공이'는 41% 할인돼 3만2,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옥션 유아동팀 최우석 팀장은 "과워렌저, 터닝메카드 등 이슈가 될만한 남아 애니메이션이 줄고 공공이, 소피루비 등 여아 애니메이션이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날 선물로 여아완구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와 '레고'의 경우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남, 여아 모두가 선호하는 선물로 자리잡은 것과 더불어 키덜트 쪽의 영향으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CU, 가맹점주 추천 도시락 리뉴얼 2종 출시

CU(씨유)는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CU고추장삼겹살구이와 'CU스팸구이'의 품질을 한 층 업그레이드하여 이달 25일과 오는 2월 각각 출시한다고 밝혔다.

매주 신상품이 출시 될 만큼 상품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편의점 도시락 카테고리에서 CU(씨유)가 2013년도 상품을 다시 선보이게 된 것은 가맹점주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CU(씨유)는 가맹점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상품을 리뉴얼 출시한다. '고추장삼겹살구이(4,000원)'는 칼칼한 고추장 소스를 발라 담백하게 구운 삼겹살을, '스팸구이(4,000원)'는 CJ제일제당의 대표 상품인 '스팸'을 살짝 구워 각각 밥 위에 토핑했다.

앞선 상품보다 고추장 삼겹살 두께를 늘려 고기를 씹는 맛을 강조했으며, 스팸 증량도 60% 가량 늘렸다. 특히 고추장과 양파마요네즈소스를 넉넉하게 담아 밥과 함께 싸먹듯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5월 11일(목)은 황토현 전승일로 사진행사가 진행됩니다

제50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17.5.12(금) - 14(일)
황토현전적지 및 정읍시 일원

주최: 정읍시 | 주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문의: 063)538-1894 | www.황토현.com

일정표	시간	행사명	장소
사전행사 5월 11일(목)	11:00	123주년 동학혁명황토현전승기념식(천도교)	기념탑
	14:30	동학농민혁명포럼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방안 모색'	교육관
5월 12일(금)	14:00	특별기념전 '지나온 50년 나아가갈 50년' 오프닝	신말목장터
	16:30	기획전시 '동학농민혁명, 민족운동으로 꽃피우다'	기념관
	17:30	제50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	아외특설무대
		제7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50주년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축하공연	
19:45	50주년 정읍시립국악단 특별공연 '천명'	녹두광장 (제세문 앞)	
5월 13일(토)	10:00	황토현 학생백일장, 사상실기, 서예대회	사발동문광장
	13:00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고부면 신동리
	14:00	정읍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아외특설무대
	15:00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구민사
	17:00	정읍시민극 '녹두의 딸, 옥이'	교육관
	18:30	청소년 정기발달페스티벌	아외특설무대
	19:45	뮤직&북콘서트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혁명'	아외특설무대
5월 14일(일)	09:00	50주년 정읍시립국악단 특별공연 '천명'	녹두광장 (제세문 앞)
	10:00	제20회 황토현 전국농악경연대회	사발동문광장
	13:30	가족과 함께하는 전국역사퀴즈대회	아외특설무대
	14:00	제11회 황토현 전국청소년토론대회 결선	교육관
16:00	정읍문화예술회관 발표회	아외특설무대	
		정읍문화예술회관인하마당	아외특설무대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